



통념 깨버린 창조의 광고철학

《딱정벌레에게 배우는 광고발상법》
펴낸 박현주씨

수 있었던 것이다.

“비틀의 광고카피는 마치 고급 유머집을 보는 듯 유쾌한 느낌을 받지요. 예를 들어 사진이 놓일 자리를 비워둔 채 ‘5백만번째의 VW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만 팔려버렸습니다’는 헤드카피를 배치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5백만 대 돌파...’ 같은 요란한 문구로 장식했겠지요.”

홍익대 응용미술학과 재학중 이기홍 교수의 명쾌한 ‘광고론’ 강의스타일에 빠지면서 광고계 진로를 결정했다. LG전자·대한항공·대우계약 등의 광고캠페인을 성공시키면서 조선일보 광고대상의 영예도 누렸고 《광고 살아남기 앞서가기 광고 12》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현재 홍익대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는 그는 학생들에게 ‘비(非)·강(強)·단(單)’의 원칙을 강조한다. 아이디어를 글이나 그림으로 옮길 때 남과 다르고 강해야 하며 심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에게 배우는 광고발상법> 후속작도 욕심내고 있다. ‘광고는 하나의 예술’이라는 자신의 광고철학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증해보고 싶은 것이다.

— 박천홍 기자

“작게 생각하세요”(Think Small), “불량차”(Lemon). 미국 광고사에 불후의 걸작으로 꼽히는 광고 헤드라인이다. 독일의 소형승용차 폴크스바겐의 카피로서 기존 광고의 통념을 일거에 전복시킨 창조적 발상의 범례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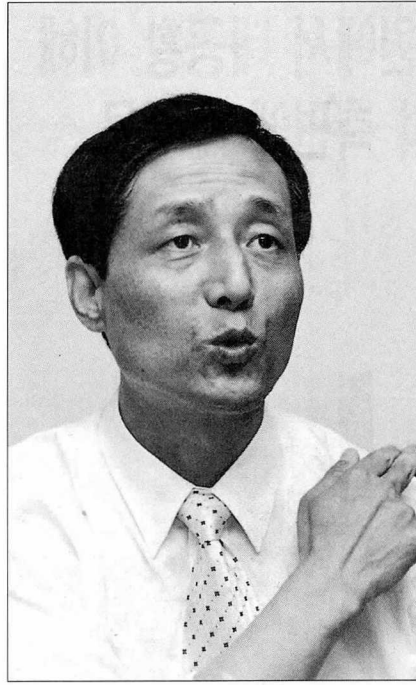
딱정벌레차 폴크스바겐 비틀과 그 광고캠페인의 창조적 발상법을 추적한 《딱정벌레에게 배우는 광고발상법》(나남출판)을 펴낸 박현주씨(52). 현재 광고대행사 LG애드 상무이사인 그가 비틀 광고를 만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1970년대 초 광고계에 입문하면서 우연히 미국의 광고대행사인 DDB의 폴크스바겐 비틀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작은’ 광고가 ‘큰’ 명성을 누리게 된 창조의 철학을 알게 되면서 하나씩 자료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비틀 광고의 성공전략을 크리에이티브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 책은 비틀 광고의 성공요인을 세가지로 꼽는다. 제품을 철저히 연구한 후, 광고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표현전개의 일관성을 지켰으며, 제품의 단점을 유머러스한 카피로 반전시켜 선용했다는 점이다.

“비틀 광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선 제품 자체가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정신을 가능하게 했던 DDB사의 유연한 제작 시스템에 있습니다.”

DDB사의 탁월한 광고전략에는 ‘아트와 카피의 통합’이라 불리는 독특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아트디렉터와 카피라이터가 짝이 되어 상식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광고를 일구어낼



인공위성을 쓸 수 있는 북한

《북한을 움직이는 테크노크라트》
펴낸 이재승씨

다녀가 기술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북한은 사회과학 못지 않게 자연과학 중심의 정책을 폈다. 장관 가운데 80%가 공대 출신이며, 고위 간부 중에 상당 수가 이공학계 출신이라는 사실은 북한이 과학기술을 중시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한에서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북한을 연구하는 것은 빙산의 일부만 캐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북한의 과학기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북한을 움직이는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모든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군수와 관련된 기술은 수준급에 올려놓았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기술은 소홀히 다루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국가 주도의 경직된 정책이 경제적 낙후를 가속화시킨 것이다. 이것이 북한 경제의 현주소다.

사회단체 남북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참고자료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은 해외 동포들이다. 앞으로 북한의 현직 관료 중심의 과학기술자와 경제적 시각으로 북한을 연구할 계획이다.

— 오완진 기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이어 인공위성을 타원형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인공위성보다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골벽적이고, 러시아는 인공위성이라고 확인했다. 주변 국가들이 축하를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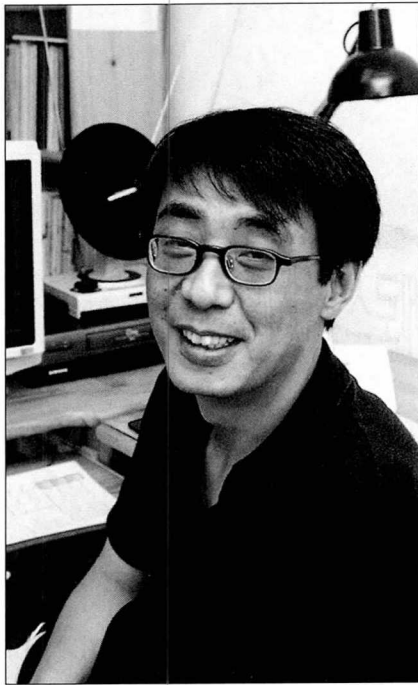
“미사일보다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문제 전문가 이재승(47, 세계일보 논설위원)씨의 견해다. 그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5년 동안 북한을 연구한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북한을 움직이는 테크노크라트》(일빛)는 북한의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은 꾸준했습니다. 그 결과 군수와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과학, 특히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고 강조한다. 전쟁 중에도 과학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토굴을 팠는가 하면, 남한의 많은 과학자를 월북시켰다. 대표적인 인물이 몽양 여운형의 아들 여경구. 일제시대 일본의 로켓과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여씨는 월북하여 북한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쟁 중에 남한 과학자의 대부분이 월북했던 것도 과학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또한 북한은 젊은 과학기술자 수천명을 러시아로 유학 보냈으며, 러시아의 많은 과학자가 북한을





사람이 참여하는 디지털 문화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펴낸 백옥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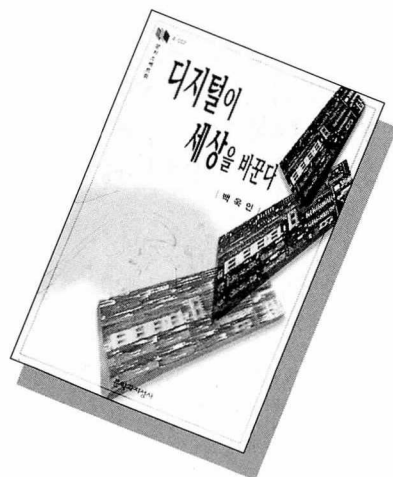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죠. 이런 속성 때문에 새로운 다원주의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백옥인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초기 인터넷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문화가 주도하게 되는 미래사회는 장미빛일까? 이 물음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문화가 앞으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보사회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의 분석이 우선입니다. 기원에 대한 분석 없이 무절제하게 정보사회가 도래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면, 이 사회의 성격과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빈민 생활 연구에서 시작한 그의 작업은 이제 일상에 작용하는 디지털 문명의 본질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백교수는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집도 펴낼 예정이다. 현실사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회 역시 개인들이 끊임없이 참여해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 김연수 기자



“인터넷을 잘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거나 하면 됩니다. 5분이면 누구나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뿐이죠.”

이번에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문화과지성사)를 펴낸 백옥인 교수(41세·서울산업대 인문학과)는 ‘인터넷을 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이제까지의 기술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에서 ‘잘한다’는 말이 쓸모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실은 미국·일본·한국에서 나온 갖가지 인터넷 관련서적들로 빼곡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인터넷과 정보 고속도로>, <디지털 혁명과 일상생활>과 같은 논문을 써왔으며, 디지털 문화의 전도사나 다름없는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디지털이다》(박영물출판사)의 번역자이기도 하다.

“80년대에는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석사 시절에는 계급론을, 박사 시절에는 빈민론을 연구했죠. 빈민은 계급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층간의 소비행태나 생활양식을 통해서 접근하기로 한 거죠.”

빈민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90년대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그가 파악한 90년대 한국사회는 소비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정보사회였다. 여러 계층간의 생활 양식에 대한 접근이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과 만나게 된 지점이 바로 여기다.

“네트워크는 전통사회보다 더 즉각적이고 일시적이면서도 개방적입니다. 재래의

어른과 청소년을 위한 동화집

어른과 청소년을 위한

✪ 안데르센 걸작동화선집

· 320면/값 6,000원/소책자 3,000원
총 156편 중 필독해야 할 28편의 동화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선정한 것이다.

어른과 청소년을 위한

✪ 그림형제 걸작동화선집

· 340면/값 6,000원/소책자 3,000원
총 210편 중 필독해야 할 53편의 동화를 수록한 것이다. 서양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어른과 청소년을 위한

✪ 이솝우화선집

· 244면/값 4,000원/소책자 3,000원
총 207편의 우화가 어른을 위해 편집된 것이다. 그 이상 되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중복 등으로 불필요하므로 영미권에서는 오랫동안 207편을 인정하고 있다. 안데르센의 동화와 그림의 동화, 그리고 이솝의 우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표현되는 유럽문화의 필수적인 요체이다.

현대지성사 신간

✪ 표준 서양철학사

· 프랭크 킬리 지음/양장·신국판/840면/값 25,000원
십수 년만에 국내에 처음 나온 본격적인 철학사 교재! 철학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 철학교수가 쓴 책으로 오랫동안 미국대학에서 표준적으로 쓰이고 있다. 초판은 1914년, 2판은 1951년, 제3판은 1956년 레저 우드 교수에 의해 개정 증보되었다. 미국 각 대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참고서로 유용하게 쓰여왔던 책은 거의 없다.

✪ 플루타르크 영웅전 선집

· 신국판/432면/값 10,000원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모두 50명의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의 생애를 이야기하며 비교하고 있다. 영웅전 전체는 상당히 방대하다(신국판 약 2,000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고전총서를 발간하면서, 그중 반드시 읽어야 할 9명의 영웅전을 모아 한 권으로 출판하였는데, 본 역서는 바로 그 책이다. 이 책만큼 인류의 영원한 재산이라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책은 드물다.

✪ 로마의 건설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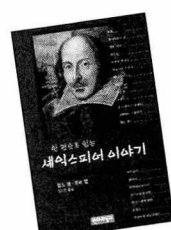
· 플루타르크 지음/신국판/370면/값 9,000원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로마를 세운 대표적인 인물 9인의 전기만을 따로 엮은 것이다.

✪ 청소년을 위한 그리스 신화

· W.H.D 라우스 지음/신국판/280면/값 5,500원
20세기의 훌륭한 그리스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라우스는 훌륭한 선생님이자 만담가였다. 그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리스 신화를 소개하는 탁월한 입문서를 만들었다. 알기쉽게 쓴 최상의 안내서이다.

✪ 한 권으로 읽는 셰익스피어 이야기

· 찰스 램 지음/신국판/383면/값 8,500원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작품 20편을 읽기 쉽게 산문체로 다이제스트 하였으며, 거의 2세기 동안 셰익스피어 이야기의 요약의 걸작으로 인정받았다. 부록으로 그의 전 작품 37편의 요약이 첨부되어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해설이 자세히 붙어있다.



인문학 전문출판

현대지성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5-1(임광B/D304호)
· 전화 588-9864 · 팩스 588-5267